

아시아인터섹스운동

선언문



2018년 8월부터 11일까지 인터섹스인권기금의 후원으로 제1회 아시아 인터섹스 포럼이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본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인터섹스 아시아’를 설립했다. 인터섹스아시아는 아시아의 인권기반 인터섹스 단체들과 인터섹스 개인들, 공동체, 운동을 위해 활동하는 인터섹스 활동가들의 첫 지역 네트워크다.

홍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의 인터섹스 단체와 공동체를 대표하는 14 명의 인터섹스 활동가가 이 포럼에 모였다.

인터섹스아시아의 목표는 아시아의 인터섹스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일하는 것, 아시아의 인터섹스 개인 및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 그리고 인터섹스인 사람들의 생명권과 몸의 완전성, 신체적 자율성, 자기결정권이 어느 곳에서든 증진되고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인터섹스 인권 가시성과 인정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이 바로 아시아 인터섹스 운동에서 핵심적인 순간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의료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낮은 인터섹스 인식수준으로 인해 불필요하고 비인간적인 의료 절차들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인터섹스 영아와 청소년, 성인들에 대한 “정상화” 수술 및 조치들이 포함된다.

인터섹스들은 전형적인 여성 혹은 남성에 해당하는 성별이분법적인 몸에 들어맞지 않는 성징들(성기, 성선, 호르몬, 염색체 패턴 등)을 갖고 태어난다. 그 때문에 이들은 종종 낙인의 대상이 되고 건강권, 신체적 온전함에 대한 권리,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여러 종류의 인권을 침해받는다.

아시아에서 우리는 인터섹스로서 수많은 문화적, 종교적, 관습적, 의료적 신념과 관행을 통해 인터섹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살인을 영속시키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입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인터섹스아시아는 아시아 각국 출신의 인터섹스 중심 단체 및 인터섹스 개인들로 구성된 자주적인 네트워크이다. 우리는 인터섹스 쟁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섹스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한다.

또한 아시아인터섹스포럼과 인터섹스아시아는 (몰타 선언으로 알려져있는) 제3회 국제인터섹스포럼이 발표한 성명서와 2017년 ILGA 아시아에서 열린 인터섹스 사전컨퍼런스가 발표한 인터섹스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는 원칙들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 성명서들에서 천명한 인터섹스 차별 종식과 아시아의 인터섹스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요구를 생명권, 몸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신체적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까지 확장시키고자 한다. 그리하여 아래 선언문을 통해 이 뜻을 담았다.

2018년 2월 11일

태국 방콕

전문

우리는 인터섹스인 사람들이 실제로 있으며,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지역과 국가에 존재함을 확실하게 밝힌다. 그러므로 인터섹스는 그들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입법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인터섹스 활동가들로, 차별을 철폐하고 인터섹스들의 인권을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요구안

- 인터섹스들에게 가해진 고통과 부정의를 인정할 것.
- 인터섹스들에 대한 성차별주의, 의료화, 낙인찍기가 중대한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정할 것.
- 인터섹스를 가리키는 모든 용어에 찍혀있던 낙인을 없앨 것.
- 인터섹스라는 사실은 생물학적인 성징과 관련이 있으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인정할 것.

인터섹스 당사자는 이성애자일 수도 있고, 레즈비언일 수도 있고, 양성애자 혹은 무성애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여성이나 남성으로 정체화할 수도 있고, 둘 다 혹은 둘 다 아닌 것으로 정체화할 수도 있다.

- 변형 및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성기수술이나 심리적 및 의학적 조치를 입법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종식시킬 것. 인터섹스 당사자들이 각자의 몸에 대한 완전성, 신체적 자주성,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들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 인터섹스 태아에 대한 착상전 유전진단, 산전 선별검사 및 개입조치, 선택적 낙태를 종식시킬 것.
- 성별 선택을 위한 약물치료 시행 그리고 태아와 신생아에게 행해지는 의료적 개입 등을 비롯하여, 인터섹스들과 여러 인터섹스 유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행해졌던 부적절한 의료적 관행과 의례들을 폐지할 것.
- 인터섹스들에게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임조치를 종식시킬 것.
- 의료 관행, 지침, 의례,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국제 질병 분류를

비슷한 분류법들에서 여러 변형된 유형의 성징들을 비병리화할 것.

- 산전 상담과 지원에서 인권에 기반한 인터섹스 관련 교육을 포함시킬 것.
- 인터섹스들에 대한 영아살해, 유기, 명예살인을 종식시킬 것.
- 상속 요건으로서 남성으로 만들기 위해 인터섹스 아동에게 정상화 수술을 강제하는 관행을 철폐할 것.
- 인터섹스의 상속권이 불임이라는 이유로 부정당하지 않도록 할 것.
- 인터섹스 단체들과 동료 지원모임들이 인정을 받고, 자원을 획득하고, 역량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할 것.
- 반차별 입법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징을 추가함으로써 인터섹스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교차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성폭력과 성희롱과 관련된 법에서 인터섹스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할 것.
- 인터섹스 장애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보장할 것.
- 인터섹스 난민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적절한 심리·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것.

- 혼인과 입양 관련 법에서 인터섹스들에게 평등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법적 보호를 보장할 것.
- 일터에서의 차별로부터 인터섹스들을 보호할 것.
- 인터섹스 당사자와 그 가족들 및 주변인들에게 지지적이고 안전하며 자긍심을 갖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할 것.
- 인터섹스 당사자와 가족들을 권리를 고양시키기 위해 인권에 기반한 인터섹스 교육을 제공할 것.
- 인터섹스 커뮤니티들을 연결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인터섹스 당사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것.
- 인터섹스들이 스스로의 의료기록과 병력에 대해 완전한 정보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병원, 교육기관, 정부기관을 비롯한 민간 및 사회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인터섹스들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것.
- 인터섹스들에게 모든 인권과 시민권이 부여되도록 보장할 것.
- 인터섹스들의 신체적 완전성과 건강을 보장하는 관점에 기반하여,

- 병리화하지 않는 방식의 자주적인 심리-사회적 및 동료 지원이 부모와 돌봄 제공자는 물론이고 인터섹스 당사자에게도 (스스로 필요하다면)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되어야 한다.
- 인터섹스들의 건강을 위해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전문가들과 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할 것.
 - 인터섹스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및 정신 건강 욕구와 관심사항들에 부합하는, 접근가능하고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
 - 인터섹스 아동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 등록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크면서 스스로 다른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성별로 정체화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것.
 - 해당 당사자가 요청할 시 간단한 행정 절차를 통해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성별 분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모든 성인과 자격을 갖춘 미성년자는 여성, 남성, 이분법적 성별 정의를 벗어난 논바이너리, 혹은 그 외 여러 선택지들 사이에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에는, 인종이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성별이 출생 증명서나 신분증명문서에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인터섹스 당사자들의 건강에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파트너들—예컨대 보건서비스 제공자, 부모, 교육분야 전문가들로 한정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적 관점에서 인터섹스 관련 쟁점들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인터섹스들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성별 확인 검사들을 종식시키고, 그들이 법적 성별에 맞게 모든 수준에서 경쟁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모욕을 당하거나 수상 무효 처리를 당한 인터섹스 운동선수들은 배상을 받고 복권되어야 한다.
 - 커뮤니티와 사회 전반에서 인터섹스 관련 쟁점과 인터섹스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
 - 모든 교육 단계에서 인권에 기반한 인터섹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섹스 당사자 및 그들의 경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할 것.
 - 과거에 인터섹스들에게 가해진 고통과 부정의에 대해 적절한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구제, 배상, 사법 접근권, 진실을 알 권리를 제공할 것.

위 내용에 기반하여 아시아인터섹스운동(Asian Intersex Movement)은 아래의 사항들을 요청하는 바이다.

- 국제, 지역, 국가 인권기구들이 활동 진행에 있어 인터섹스와 관련된 쟁점을 이해하고 가시화할 것.
- 각국 정부는 아시아인터섹스운동이 제기한 문제들에 주목하고 인터섹스 활동가 및 단체들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들을 도출해낼 것.
- 각국 정부는 인터섹스 영아 살해 및 명예살인 같은 해로운 문화적 관습을 철폐시킬 것.
- 언론기관 및 매체들은 인터섹스들의 사생활보호권, 존엄성, 정확하고 윤리적인 재현을 보장할 것.
- 공동체 지도자들은 인터섹스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종식시키기 위한 교육에 참여할 것.
- 기금제공자들은 인터섹스 단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가시화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이 인터섹스 인권을 긍정하고 지식을 쌓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쓸 것.
- 인권기구들은 인터섹스 단체들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힘쓰고 상호지지와 의미있는 참여를 위한 기초를 쌓을 것. 이 모든 행위는 협력의 정신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누구도 인터섹스 쟁점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하여서는 안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이커 치우(Hiker Chiu) - 대만 (중국어, 영어 가능): hiker@oii.tw; 고피 산카르 마두라이(Gopi Shankar Madurai) - 인도 (영어, 타밀어, 말라얄람어, 힌디어 가능): br.gopishankar@gmail.com, +918610539702, +919092282369, @gopishankarmdu; 나다 차이야짓(Nada Chaiyajit) - 태국 (태국어, 영어 가능): nada.chaiyajit@gmail.com; 스몰 룩(Small Luk) - 중국 홍콩 (중국어, 광둥어, 영어 가능): ivysmall@ymail.com, +85251996331 (whatsapp); 이산 레그미(Esan Regmi) - 네팔 (네팔어, 영어 가능): esanregmi@gmail.com, +977 9861336738

아시아인터섹스운동 선언문 한국어 번역본에 붙이는 감사의 글: 제1차 아시아 인터섹스 선언문 번역 프로젝트는 인터섹스 아시아가 시작하고 RFSL이 후원하였습니다. 인터섹스 아시아는 임유경님, 민지희님, 김연지님, 익명의 인터섹스 활동가 1인, 류민희님, 그리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번역 지원과 용어 검토에 감사를 드립니다.

Produced by:

Allies:



Our Sponsors:

